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증진 활동

이 주 열*· 서 옥 석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충남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건강증진은 기존의 일차예방, 보건교육 등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건강증진은 건강관리에서 개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지 및 정책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건강문제에 접근한다. 건강증진은 특정질환에 걸릴 위험에 있는 사람과 건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강조되는 점은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역량강화가 핵심 목표가 되는 것이다. 건강증진 개념의 등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실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명확한 개념적 구분과는 달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운영방법은 기존의 방법론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 특히, 일차예방, 이차예방의 활성화를 건강증진 방법론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당진군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활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당진군 보건소는 200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사업 보건소로 지정되어 2004년 12월까지 영양과 운동을 중심으로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하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4대(금연, 절주, 운동, 영양)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